핵심 아젠다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정 필요

이 보 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사장

2012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는 인사 아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30도만 웃돌아도 이미 축사는 고온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올해는 마치 더위의 한계에 도전하려는 듯 34-5도를 훌쩍 넘어 37-8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마저도 넘어서며 며칠씩 열대야가 지속되었는데, 더위로 폐사한 가축의 숫자가 100만 마리를 넘어선다는 기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위 뿐만이 아닙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전세계적인 이상 기온, 가뭄 그리고 그에 따른 곡물가 고공 행진에 대한 기사는 축산인의 마음을 더없이 무겁게 합니다.

과거 축산관련 지면에서 주로 소개되던 곡물가격은 이제 식탁물가의 주 요인으로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었습니다.

곡물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바로 축산, 사료산업입니다. 벌써부터 원활한 사료 생산에 대한 걱정은 물론 생산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축산 불황설이 오갑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면 단적으로 낙관만을 이야기 할 여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축산의 역할과 가치를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으로 만드는 큰 긍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 축제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도 밀리지 않는 우리 선수들의 체격, 체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 선수들과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어딘지 왜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경기들에서 특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모습은 체격, 체력 그리고 실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 당찬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이 큰 축을 이루었지만, 당당한 체격에서 느껴지는 국민 건강과 체력 향상, 그 변화속에서 최고급 동물성 식품을 공급해온 한국 축산의 역할과 기여가 작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가 1967년 설립할 당시 이런 설립 취지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보다 값싸게 보다 많이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설립취지이지만 곱씹어보면 당시 이보다 절실한 문제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제는 놀랄 만큼 발전했고, 국민 식생활은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와 질병 위협 가운데서 HACCP 인증 및 안전 축산물 생산 활동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최고급'은 보다 맛있고 안전하고 믿음을 주는 국내 축산물에 대한 품질의 화두가 될 것이며, '보다 값싸게 보다 많이'는 함께 추구하는 생산성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반 생산투입요소는 물론 번식이나 회전율 그리고 직원교육이나 환경요소 등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효율 향상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란 축산 농가와의 파트너쉽 형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협력적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경영 주체들을 존중하고 연계하며 함께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축산인들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니 시대를 초월한 사명이다 싶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속에서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비관적인 견해도 오갑니다. 하지만 한발짝 물러나 들여다보면, 우린 언제나 이런저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왔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업은 본디 생명을 다루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처럼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절이 쉽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 때로는 곡물가나 축산물에 대한 불황의 예측이 실제 이상으로 비관적이거나 극단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어서 수급조절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곡물은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공급이 되므로 대략 6개월 주기로 수급 조절이 됩니다. 물론 올해처럼 주요 생산지인 북반구에서 극심한 가뭄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만 그 또한 지구 반대편에서 경작면적을 늘리거나 좋은 기후 여건에 의해 증산하게 되면 몇 개월 후면 그 충격이 완화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바이오 에탄

올 사용 수준을 완화하는 정책적인 조율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의 경우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겠으나 경기와 수요공급에 따라 하나의 주기를 갖고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의한 수급 조절 기능을 무시하거나 혹은 정확한 분석이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이해 없이 수입 축산물로 물가를 임기 응변 식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정책이 산업적인 기반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율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며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곡물 부족으로 곡물이나 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자극적인 내용은 성급한 예상일 수 있습니다.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의 입지를 비관적으로만 보는 시각 역시 조급한 결론입니다. 현상 분석으로 비관을 확산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가는 전환 시기에 크고 중요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국내 축산업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 영양에 대한 기여,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 산업, 생명 산업으로서 가치, 농촌의 기간 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공헌 등을 재조명하여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산을 돌아보면 산업 규모에 비해 행정부서의 규모가 필요 이상 작아서 항상 필요한 수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함을 느끼는데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가 시작이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체계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유통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냉장 한돈 삼겹살을 취급한다는 식당의 고기를 불 판에 올려 놓는 순간 분명 냉장 한돈이 아니어서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던 반면, 정말 맛 좋은 한돈 삼겹살과 한우 고기 맛에 한국 축산에 대한 큰 자신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실망이 컸던 만큼 개선의 효과가 클 것이고 자신감이 컸던 만큼 희망적일 것입니다.

업계 내부에서 생산, 사료, 유통, 연구 그리고 정책 입안 주체들은 해외 축산물과 경쟁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겨내는가에 큰 아젠다를 가져가면서 가치 있는 투자와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다양한 도전들에서 경험했듯이 극단적인 비관론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는 성공했을 것이나 별로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 수입 개방과 대일 돈육 수출 중단, 2007-2008년도 치솟던 곡물가, FMD/AI 와 그리고 여러 국가와 진행되는 FTA 등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 왔고 극복해 가는 우리 축산업입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도전 이후에 우리 축산업은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사료산업 역시 다양한 도전 가운데서 활로를 모색하고 국내 축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왔다고 봅니다. 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막아 주길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쌓아가면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성장의 벗'이라 인식하고 큰 아젠다에 공감을 갖고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독한 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모두를 설레게 하던 올림픽도 끝나고 낮 밤이 바뀌었던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 현장에 놓여져 있는 많은 도전 과제들도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 둘 실마리를 찾아가고 때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긍정의 힘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값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성에 집중하여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을 공급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한민국 축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새벽녘 시간을 잊은 채 아파트 단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전국 각지 거리 응원단의 열기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교민이 쏟아내는 감동과 열기를 가능하게 한 뿌리에 한국 축산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누고 사부심을 가지면서 한국축산의 핵심 아젠다를 위해 행동하는 긍정을 실천하는 알찬 가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시점에서 전환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체들이 만들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핵심 아젠다 중심으로 행동하는 긍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긍정은 희망이고 그것은 창의적인 노력과 변화들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